

“중증 병상 일부 유지, 중등증은 감축... 하반기 유행 대비”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

코로나 병상운영 효율화 나서 일반 의료체계 확충 주안점 중등증 병상 2372개 조정

서울시가 하반기 코로나 유행에 대비해 병상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9일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시는 이행기 동안 일반의료체계를 확충하고, 하반기 유행에도 대비하기 위해 중증 병상 일부를 유지하고, 중등증 병상은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수요 조사를 통해 중증·준중증 병상을 155병상(중증 111병상·준중증 44병상)으로 우선 조정했다. 중등증 병상은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 특성과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입원 수요가 낮아짐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2372개를 조



서울시가 하반기 유행에 대비해 병상 운영 효율화에 나선다.

정했고, 남은 병상은 확진자 추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시는 병원 83곳, 의원 1212곳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해 총 1295곳(6일 기준)을 운영 중에 있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시민은 포털사이트에서 가까운 외

래진료센터를 검색한 다음 사전 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재택치료자에게 배포한 ‘의료용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수거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 재활용과 향후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택치료를 받았던 시민은 보관 중인 측정기를 지퍼백에 담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그간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4월 말 기준 의료용 산소포화도 측정기 1만6809개가 회수됐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시민들에게 수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생활 속 감염 차단이 중요해졌다”며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유흥시설·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17만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핵심방역 수칙을 담은 홍보물 20만부를 제작해 업소에 배포하고, 일대일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와도 협력해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날 시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 관내 코로나 확진자는 전일 대비 2715명 증

가한 누적 353만135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망자는 2명이 추가 발생해 총 4691명으로 늘어났다.

코로나 주간 발생 동향에 의하면 지난주(5월 1~7일) 서울시 확진자는 4만1657명으로 일평균 5951명이 발생했다. 이는 2주전(4월 24~30일)보다 2417명 감소한 수치다.

확진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지난주 14.0%로, 2주전 14.7%와 비교해 0.7% 포인트 소폭 줄었다. ‘사망자 수’는 2주전 114명에서 지난주 87명으로 약 2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치명률은 0.19%에서 0.21%로 0.02%포인트 증가했다.

박 방역통제관은 “서울시 코로나19 확산이 감소 추세에서 최근 정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5월 가정의 달에 모임과 행사가 많아졌는데 감염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환기, 손 씻기 같은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방문·전화 필요없는 ‘비대면 복지 서비스’

서울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지난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은 A씨는 퇴원 후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거동이 불편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의사통話が 어려워 전화 신청도 불가능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들이 대신 신청하려 했으나 바쁜 업무로 동주민센터 방문이 여의치 않았다.

서울시는 9일부터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에서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는 복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당사자는 물론 생계위기 가구를 발견한 이웃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기관 근무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동주민센터 운영 시간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고,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 시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후 현장을 방문해야 했다.

이제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메인에서 ‘위기가구 복지도움 요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한 다음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본인 ▲이웃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한 후 기본 정보와 함께 대상자에게 어떤 도움(생계, 식사, 주거, 의료 등)이 필요한지를 체크하고 지원 요청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동주민센터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집중호우 전방위 대비책 마련

‘강수 감지 자동 전파시스템’ 구축 하천 통제 자치구 공동대응 전환

서울시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강수 감지 자동 전파시스템’을 구축·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기상관측장비인 ‘강수량계’에 일정량의(시간당 3mm 이상) 강수가 유입되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수방 담당자, 시설물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돌발 호우 같은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돌발성·국지성 강우 대응 시스템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기상청과 협업해 서울 지역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맞춤형 분석하

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유지하는 등 초동 대응체계도 구축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방재 성능을 넘어서는 강우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시간당 95mm 이상의 강우가 내릴 때를 대비해 위험 강우 정의, 응급대피계획(E.A.P) 수립 기준,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행동 요령을 담은 ‘방재성능 초과 강우 대비 대응체계 수립지침’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하천 수위 상승 시 자치구별로 대응했던 하천 통제 방식은 자치구가 공동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시는 하천 통제 및 예·경보 기준을 강화하고, 하천 고립사고에 취약한 도립천은 별도의 통제 기준을 마련해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시민들이 신

속하게 대피하도록 자치구·시민·경찰 등 800여명으로 구성된 하천순찰단도 운영한다.

비상 발령 시 침수 취약가구를 보호하는 ‘돌봄서비스’, 주요 침수지역을 관리하는 ‘현장기동반’, 산사태 취약지역을 순찰하는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가동한다.

또 시는 잠수교, 증산교 하부도로 등 침수가 우려되는 도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올해 ‘도로수위계’를 19개소 추가 설치해 총 55개소로 늘린다. 도로를 통제해야 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전광표지판(VMS), 옥외전광판, 긴급재난문자(CBS)를 활용해 교통통제 상황, 우회 도로 등을 빠르게 안내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8 | 해질 / 19:30

5월

10일 (화)

음력 : 4월 10일

수도권 날씨

13~2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고양시 “기후위기 극복하고, 마일리지 쌓자”

평생학습 마일리지 시범사업 운영

고양시가 이달부터 평생학습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평생학습 활동을 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적립 및 인센티브를 지원, 평생학습의 참여도를 높이고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고양시는 ‘탄소제로도시’를 목표로 하는 만큼, 기후·환경 분야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평생학습 마일리지는 지난해 6월 ‘고양도시포럼’ 평생학습 세션에서 시민 및 전문가가 평생학습 참여결과 활용 건의와 함께 마일리지 제도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지난해 12월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개정도 추진 중으로, 개정안에는 평생학습 마일리지 적립 및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평생학습 마일리지 적립은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활동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민모임, 교육 행사 등 적립 대상으로 인증 받은 학습활동에 한해 가능하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기후·환경 분야의 평생학습 활동만을 대상으로 한다.

평생학습 마일리지는 ‘고양탄소지움카드’를 통해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고양탄소지움 카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고양시 지역화폐로, 환경교육 수료·대중교통 이용 등 저탄소 생활실천 활동을 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미국, 러 국영방송 3곳 제재... 특수핵 물질 수출도 금지
▲ 푸틴, 전승절 열병식서 연설... 우크라이나 장기화 우려 / 사진 뉴스스

▲ 중국, 4월 대러 수출 26% 급감...美 제재 영향 관측도
▲ 미국 투자자, “PER 높은 주식·옵션·가상화폐 투자 열기 시들”



▲ 러 부총리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중... 육·해·공 공격 목적” / 사진 뉴스스
▲ 윤 정권 출범에... 일본인, 한일 관계 개선 “기대” 44% vs “기대안해” 46%